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04)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219)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Hymn 49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룻기 2:8-16	인 도 자
설 교	아픔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10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서정길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Kaitlan Hronek
친교사역 정순영집사 이현미집사 최정아성도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8월 5일 제53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룻기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의 위기를 피해 잘살아 보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을 장가보내어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결혼시킨 지 10년도 채 안되어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면 아들들이라도 아니 한 아들만이라도 장수하여야 할 텐데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죽고 10년이 채 못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겪고 살았으면 두 며느리들이라도 동일한 비극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역시 시어머니와 비슷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생의 동일한 비극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나오미와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비슷한 고통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외로 많이 발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 세대의 실패나 고통은 대부분 자녀 세대로 그대로 유전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는 좋은 아빠가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아버지와 똑같은 폭력적인 아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저주하면 자란 아이들은 결국 그 아버지의 실패를 그대로 배워 아버지보다 더한 폭력적인 아빠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남에게 전가함으로 위로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함으로 자신의 상처나 고통이 결코 치유 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전가 되어진 상처나 고통은 전가 되어질 때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릴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부풀어 오른 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대물림되는 상처와 고통에 대한 단절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 2대에 걸쳐 반복되어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통에 빠진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어떻게 회복되고 역전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은 고통과 상처 때문에 남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며느리 룻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고통에 처한 룻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며느리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아스로 하여금 이방 여인 그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 중 하나였던 모압 여인을 만나게 한 것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마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라합입니다. 룻과 같은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여인으로 어머니가 받아야 했던 상처와 아픔을 아는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방여인을 만나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는 이방여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상처, 룻의 상처, 그리고 보아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선용하시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선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경험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더 독한 사람이 되어 남에게 상처를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상처의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데 쓰여지는 사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할 것입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타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풍성히 나타나기를 이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 후에 7월 사역보고 및 월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3. **Kitsap Memorial State Park에서 열린 교회학교 여름캠프가 11명이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4. **내일 오후 6시에 미주선교연회 서북미 지방 송창영 감리사님을 모시고 인사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조관연 목사님(올림피아연합감리교회)을 강사로 모시고 창립1주년 감사예배로 드리며 오후 4시에는 임직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우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23.00	
감사헌금:	$460.00	
주일헌금:	$5.00	
특별헌금:	$0.00	**합 계: $988.00**

중보기도 제목

- 아프간 단기선교팀의 안전한 귀국을 도와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